

임실 마을 만들기, 농촌에 큰 활력

군, 40억여원 투입... 체험관광객 유치·주민역량강화사업 전개

임실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촌에 활력을 주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올해도 차별화되고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력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민선 6기들어 지난 3년간 마을만들기 사업에 총 40억여원을 투입해 살고싶은 마을 34개 마을을 조성하는 등 총 53개 마을사업에 성공리에 추진했다.

추진성과를 보면 체험마을의 방문객 수가 2013년 9만여명에서 2016년 13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나 무려 137%의 증가율을 보였다.

더불어 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매출액도 13억여원 증가하는 등 체험관광객 유치와 내수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은 마을운영의 전문성을 높

이고 다각화된 운영을 위해 전문가 양성교육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분야별로는 전통놀이 1급 전문지도사 12명과 식생활교육 전문강사 15명을 각각 육성, 지원했다.

또한 보다 더 전문화된 농촌마을 체험과 활동의 다양성을 위해 농어촌 체험 자격증 22명 등을 양성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올해도 농촌활력 주력 분야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해 타지역과는 차별화되는 특색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특히 마을만들기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주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사업을 전개해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에 전문성과 차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에는 체험관광객들에게 마을별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마을해설사와 요리체험 등의 한식조리사 과정을 새롭게 신설해 각각 30명의 마을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는 군 자체 사업인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 국도비 사업인 창조적마을만들기와 생생마을만들기 등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심 민 임실군수는 "농촌마을은 저마다의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체험과 관광이 있는 마을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우리 군은 활력있고, 살고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역량에 맞는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민박 활성화로 삼락농정 선도한다

순창군이 특색 있는 민박 활성화를 통해 농촌체험관광객을 유치하고 사람 찾는 농촌 '삼락농정' 실현에 본격 나섰다.

군은 최근 농촌체험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민박 활성화 조치에 나선 것. 현재 순창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민박은 36개소로 주요 관광지 주변이나 산촌 등에 위치해 있어 농촌의 생활과 힐링을 체험하기에는 적격이다.

특히 순창 지역 민박들은 고추장 민숙마을 한옥형, 깊은산촌 휴양형, 강천산 장군목 등 관광 체험형 등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더욱이 2015년 말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으로 민박시설에서도 아침식사 제공이 가능해 집에 따라 군은 순창치유밥상 등을 접목해 순창색이 더욱 묻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민박활성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침구류 교체 지원사업비를 지원한다. 침구류의 위생 상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민박의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민박 성공에 중요한 요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천만원의 투입해 침구류 지원 사업을 4월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각 민박에서 진행해오던 마케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마케팅이 가능한 순



순창군이 특색 있는 민박 활성화를 통해 농촌체험관광객을 유치하고 사람 찾는 농촌 '삼락농정' 실현에 본격 나섰다.

1000만원 투입·접목 침구류 교체 지원사업비 지원

창민박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물도 제작해 본격적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홈페이지 제작은 5월한 마무리 짓고 여름휴가철을 겨냥해 홍보물 배부 등 본격적 마케팅 전략도 세운 상태다.

지난해 구성된 민박협의회도 기능을 강화해 강천산 등 대표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민박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 강구중이다.

군은 민박활성화가 사람찾는 농촌

삼락농정 실현은 물론 토탈관광의 새로운 아이템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촌 분야의 모습을 느끼고 싶어하는 농촌체험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태"라며 "순창의 민박들이 발효의 고장 순창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착수

고창군은 상수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양질의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용역비 14억7000만원을 투입해 2018년 9월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수도법에 의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이번 계획은 상수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설치·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물 사용

량 등을 고려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과 관망도 재정비 등이 포함되어 수도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관망운영을 위한 수도정책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 지역 여건과 발전방향을 면밀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상수도 사업의 경영효율 및 군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조상땀 찾아주기·토지소유현황 조회 '호응'

남원시가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토지관련 정보인 '조상땀 찾아주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해 836명 1,926필지를 제공한 데 이어 올 현재까지 148명 318필지 조상땀 찾기 개인별소유현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조상땀 찾기 서비스의 경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이며,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다.

다만 '조상땀 찾기' 조회 서비스의 경우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연중 계속 시행중이며,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 공인된 것),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사유가 기재된 이후 조회가 가능하며, 상속인 신분증, 제적등본(2008.1.1.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구비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자필 서명한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남원시는 토지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로서 많은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순창군은 전시대비의 동원업무의 완벽한 수행과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28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1/4분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번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군부대 관계자,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교육, 자원조사 결과분석, 분야별 동원계획 연계성 검토 및 보완 순으로 진행됐다.

이 행사는 전시 동원을 수행하는 유관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유사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

적 관리, 동원계획의 실효성 검토와 미비점 보완으로 완벽한 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안보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비상대비 체제와 국가안보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한다.

또한 동원자원별 확인점검은 동원자원의 적정성 검토와 동원분야별 변동 자원 및 부적격자원 발생 시 대체 지정여부,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적정 반영 여부 확인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전북 동부권고추 주주총회 성료

전북 동부권고추(주) 정기 주주총회가 28일 성수면 소재 임실고추가공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심민 군수, 강호신 고추생산자연협회장, 농협 임원을 비롯해 읍·면 대표주주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9기(2016년) 결산보고, 이사·감사 승인의 건, 임원 보수 승인의 건, 회사 명칭 변경 등의 안건을 비롯해 제10기(2017년) 운영계획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 선출된 정성수 대표이사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제 값 받는 고추 산업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경영과 전략으로 명품회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경찰서-순창경찰서 수사·기소 분리대비 현장토론회

남원경찰서와 순창경찰서가 28일 수사·기소 분리대비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는 이날 수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수사관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순창경찰서도 같은 날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수사·기소 및 여성청소년 수사, 교통사고 조사 등 수사확대부서를 포함해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헌법상 검사 독립 영장청구권 삭제 등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 수사제도 개선 방안과 공정한 수사 담보장치 등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남원=유영철 기자·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산불예방 총력 '구슬땀'

고창군(군수 박우정) 대산면이 삼곡리, 해룡리 등 산림인접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산불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28일 대산면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최근 산불재난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상향 발령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 기간이 시작되어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증가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대산면은 마을방송을 통해 산불의 위험성과 주민들의 산불예방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특히 대형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역의 불법소각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여기행이나 갈까?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천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담아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경관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